

 <b>방송통신위원회</b>		<h1>보도자료</h1>			
<b>보도 일시</b>	<b>2022. 3. 31.(목) 15:30</b>	<b>배포 일시</b>	<b>2022. 3. 31.(목) 10:00</b>		
<b>담당 부서</b>	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 지상파방송정책과	<b>책임자</b>	<b>과 장</b>	권희수 (02-2110-1450) 김성환 (02-2110-1420)	
		<b>담당자</b>	<b>사무관</b> <b>주무관</b>	전민아 (02-2110-1424) 정동임 (02-2110-1453)	

## 한상혁 위원장, 미디어교육 및 공동체라디오 현장 방문

- 미디어나눔버스, 전남 신안군 압해도 압해중학교 찾아가 -
- 고려인마을이 설립한 신규 공동체라디오방송 제작현장 점검 -

방송통신위원회(이하 '방통위') 한상혁 위원장은 3월 31일(목) 전라남도 신안군에 위치한 압해중학교의 미디어 교육·체험 현장을 방문하여 학생들을 격려했다.

이번 현장방문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미디어교육 정책 현장을 살펴보고 정책 수혜자의 목소리를 듣는 등 현장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방통위는 전국 10개 광역 시·도에 설치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미디어 교육과 방송제작 시설·장비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, 도서산간 지역 주민, 어르신·장애인 등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미디어 제작시설과 장비를 실은 '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'를 활용해 다양한 미디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.

이날 신안군 압해중학교 학생들은 미디어 나눔버스를 통해 앵커·기자·DJ 등 미디어 분야 직업을 경험하고,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체험 기회를 가졌다.

학생들과 체험을 마친 한상혁 위원장은 “향후 미디어 분야를 이끄는 핵심 인재가 될 청소년들이 다양한 미디어 경험을 통해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올해 방통위는 소외지역의 미디어 격차 해소를 위해 미디어 나눔버스를 확대하고,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미디어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할 예정이다.

또한, 미디어교육 현장방문을 마치고 목포MBC를 방문하여 지역방송 제작진 및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.

한 위원장은 “목포MBC가 고유한 지역정보와 우수한 지역밀착형 콘텐츠를 제공해 전남도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”고 격려하며, “지역방송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역방송의 공적역할과 책임을 잊지 말아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
한 위원장은 다음날(4월1일(금))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(사)고려인마을이 운영하는 광산FM공동체라디오('이하' 고려방송)를 방문할 계획이다. 고려방송은 지난해 방통위가 시민참여형 미디어문화 확산을 위해 허가한 20개의 신규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 중 3번째로 방송을 시작하였다.

이날 한 위원장은 고려방송의 제작 및 송출시설 등을 점검하고 대표 프로그램인 <고려인매거진>에 출연할 예정이다.

또한, 고려인마을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피해 광주로 온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송콘텐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. 끝.